

# 제6절 매산학교의 신사참배 거부투쟁\*

## 1. 미국남장로회의 순천선교와 매산학교의 설립

매산학교(매산중·매산여중)는 미국남장로회 한국선교부에서 세운 학교이며, 호남지역의 기독교선교는 이 선교부에서 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산학교에서 '신사참배 거부투쟁'이 일어나게 된 것도 남장로회의 선교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남장로회의 한국선교는 1892년 11월 3일 테이트(L. B. Tate, 최의덕)·레이놀즈(W. D. Reynolds, 이눌서)·전킨(W. M. Junkin, 전위렴) 등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 중 레이놀즈는 1894년 5월 전라도 일대를 여행하면서 순천을 잠시 들른 바 있으며, 그후 1898년 테이트가 이 지역에 내려와 장터에서 전도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전도가 이루어진 것은 1904년에 광주 스테이션(station, 포교장 또는 선교사주재소)이 세워지면서부터이다. 즉 이무렵 광주 스테이션의 오웬(C. C. Owen, 오기원) 선교사가 순천 일대의 선교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뒤 이 지역에서는 점차 기독교인이 늘어나면서 마침내 1909년에 순천읍(順天邑)교회·대기리(大岐里)교회·구상리(九上里)교회 등이 설립되었다. 순천의 교세는 꾸준히 성장하여 1913년 마침내 순천 스테이션으로 독립되었다.

이제 순천을 비롯한 전라도 일대가 미국남장로회의 선교구역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자. 한 나라에 여러 교파의 선교회가 들어와 활동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장로교와 감리교의 여러 선교회들 사이에 지역분할에 대한 협정을 맺었으며, 이를 '교계예양(敎界禮讓)'이라고 부른다.<sup>1)</sup> 이 협정은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907년 남장로회는 충청도 공주를 기준으로 하여 그 남쪽의 선교를 맡게 되었다. 즉 충남은 대전·부여·목천, 전북은 전주·군산·이리·익산 등 전 지역, 전남은 목포·나주·광주·순천 등 전 지역, 그리고 제주 전 지역이 그 관할에 들어갔다. 통계가 남아 있는 1913년과 1916년 순천 스테이션의 교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명)

\* 제6절은 한규무(韓圭茂) 집필임.

1) 당시 한국에 진출한 선교회는 장로교의 경우 미국북장로회·미국남장로회·캐나다장로회·호주장로회 등이었으며, 감리교의 경우 미국북감리회·미국남감리회 등이었다. 이 선교회들은 같은 지역에서 함께 활동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막고 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지역분할 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이 협정은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에 맺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 교파 선교회는 이에 구애받지 않았다.

연도 \ 교인	세례교인	총교인
1913	581	1,549
1916	1,172	2,507

이 표처럼 순천 스테이션은 개설된 지 3년 만에 세례 교인수는 약 2배, 총교인수는 약 16배 늘어나는 빠른 성장을 보였다. 이는 호남지역에서도 손꼽힐만한 발전이었다.

당시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회에서는 직접적인 전도활동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선교활동도 벌였는데 남장로회 역시 그러하였다. 즉, 복음선교를 위하여 프레스톤(J. F. Preston, 변요한)·코일(R. T. Coit, 고라복), 의료사업을 위하여 티모스(H. L. Timmons, 김로라)·그리어(A. L. Greer, 기안나), 교육사업을 위하여 크레인(J. C. Crane, 구레인)·듀푸이(L. Dupuy, 두에란) 등이 업무를 나누어 활동을 벌였다.

이제 매산학교의 설립에 대하여 알아볼 차례이다. 1913년에 순천선교를 위하여 광주에서 내려온 크레인과 듀푸이 두 선교사는 1913년에 매산남학교, 1914년에 매산여학교를 각각 세웠다(처음에는 은성학교라 불렀다고 한다). 이들은 선교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매곡동 동산에 교사(校舍)를 짓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여학교는 1915년, 남학교는 1916년에 각각 완공되었으나, 두 학교 모두 당국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조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는데도 교과과정에 성경수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국은 “귀교(貴校)가 교과과목에서 종교과목을 없애지 않고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므로 이에 귀교에 대하여 교육행위를 금하는 바이다.”라고 하며 허가를 내주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개교 당시 남학생 75명, 여학생 35명을 받은 뒤 더 이상 학생을 받지 못한 두 학교는 마침내 1916년에 문을 닫고 말았다. 그리고 크레인은 평양 장로회신학교의 교수로, 듀푸이는 군산 펄볼딘여학교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그러던 매산학교가 다시 문을 연 것은 5년 뒤인 1921년 4월 15일이었다. 아마도 3·1운동 이후 일제가 이른바 ‘문화정치’를 내세우면서 각 분야에서 규제를 다소 완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특히 신임총독 재등실(齋藤實)은 선교사들을 회유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으므로 기독교계 학교의 설립도 다소 쉬워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성경과목을 그대로 두고도 자격 있는 교사를 쓰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남학교는 프레스톤이, 여학교는 비거(M. L. Bigger, 백미다)가 교장을 맡아서 학교발전을 위하여 힘썼다. 그뒤 남학교에서는 언거(J. K. Unger, 원가리)·크레인·레이놀즈(J. B. Reynolds, 이보린) 등이, 여학교에서는 밀러(L. B. Miller, 민유수)·닷슨(M. L. Dotson) 등이 교장을 맡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해부터 수업연한을 6년으로 늘리고 중학교 과정인 2년제 고등과를 병설하였다. 당시 고등과 교과과정은 성경·수신·조한문(朝漢文)·일본어·수학·역사·도화·이과·지리·창가·체조·실업학·동물·영어 등이었다. 다시 문을 연 매산학교에는 학생들이 다투어 입학하였고, 이 학교들은 순천지역의 대표적 사립학교로 발전하면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재정문제가 심각하였으며, 실력 있는 교사의 확보도 쉽지 않아 학생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922년 초에 있었던 매산학교(남) 학생들의 맹휴사건(盟休事件)은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즉, 고등과 1학년 30여 명이 “교원 일동을 개선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학교와 충돌을 빚었던 것이다.<sup>2)</sup>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는 차차 안정을 되찾아가며 발전을 거듭하였다.

---

2) 『동아일보』 1922. 3. 3.